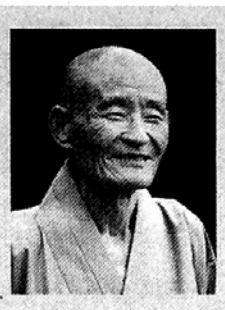
담월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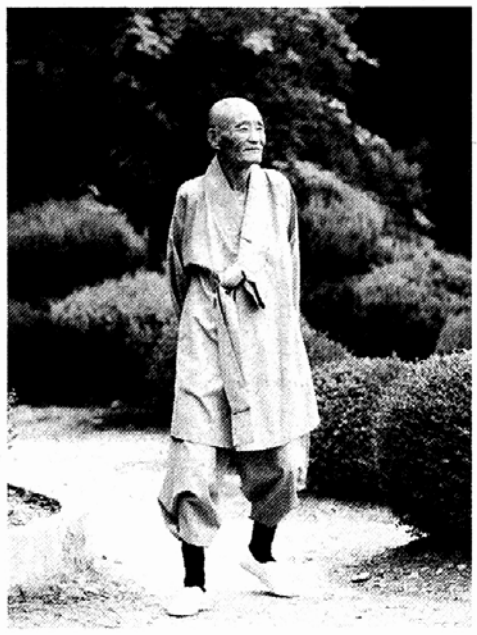
손수 절터 닦고 돌나르고 신도 시주금 극구 마다

담월스님을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스님을 청빈하고 수행에 철저한 스님이라고 말한다. 온갖 병고로 지칠 대로 지친 몸이지만 지금도 좌선과 경전공부를 놓지 않을 정도로 용맹정진이 몸에 배여 있다. 신도들에게는 자상하지만 공부하는 스님들에게는 엄하기로 소문나 있다. 상좌가 15명이나 되지만 모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여겨 아예 발걸음도 못하게 할 정도다.

스님은 1924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1941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월봉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보현사 강원 대교과를 마친 후 1945년 대원강원 수의과를 졸업했다. 1955년 가야총림 해인사 강원 강사와 부산 범어사 강원 중강을 지냈으며, 1961년 속초 신흥사 주지, 1966년 간성 건봉사 주지, 1970년 서울 칠보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제천 백련사에 주석하고 계신다. 조계종 원로의원 벽암스님,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대구 관음사 주지 원명스님이 통도사 극락선원과 해인사 강원 등에서 함께 수행했던 도반이다.

20년전 백련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절터를 닦고 돌을 나르고 길을 손수 닦았던 스님은 지금도 신도들에게 시주금 받는 것을 극구 마다하신다. 오히려 불교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볼때마다 공부 잘 하라고 호통을 치시는 일이 잦은 편이다.

담월스님을 5년째 시봉하고 있는 반야행 보살은 "담월스님처럼 욕심 없고 공부에 열심이신 스님을 본 적이 없다"고 귀띔했다.



◇무욕의 삶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자유로워야 하는 것임을 담월스님은 깨닫게 해준다.

"무소유 실천하는 삶 승가나 속가 마찬가지 많이 가지고 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와 수좌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여쭈었다.

"승가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 길을 알면 가야 하는데 알면서도 가질 않아. 출가의 사명은 견성하기 위해서인데, 그 사명을 잊고 산다면 속인과 다를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행자는 깨달음 외에 달리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번뇌와 속박에 물들게 되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니,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진정한 무소유를 실천할 때만이 깨달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가나 속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마음은 다른데 빼앗긴 채 가부좌를 틀고 앉은들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본성을 찾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한량없는 생각이 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중생의 모든 고통이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형체가 없어서 허공의 새가 날아간 자리처럼 공한 법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것이어서 넓으면 법계도 삼킬 수 있지만 좁으면 바늘끝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마음(心)입니다. 팔만대장경도 마음 심자 풀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하나 깨치고 나면 모든 이치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본래 본성이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본성을 찾는 길입니다."

담월스님은 오후시간을 주로 글을 쓰며 보낸다. 서재 한 구석에는 시중에서 파는 먹물이 10통 가량 쌓여있었다.

"17살 때 묘향산 보현사 강원엘 갔지요. 평남 고봉사라는 절에서 김만성 스님에게 의지해 공부하다가 제대로 공부하자는 생각에 보현사에 가게 됐어요. 보현사는 유학승제도가 있어 공비로 일본유학까지 갈수 있었는데 욕심이 났지요. 그래서 보현사에 계셨던 월봉스님을 은사로 사교, 대교를 졸업하고 서울 안암동에 있는 중앙고등강원이었던 대원강원 수의과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강백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계셨는데, 스님 밑에서 오래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스님을 모시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큰 복이었지요."

스님은 이따금씩 찾아오는 스님들이나 신도들에게 늘 동산스님 이야기를 하신다.

"동산스님은 물욕과 사심을 떨친 분이셨지. 소탈하고 소박한 성품으로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공부하러 오는 선객들을 유난히 아끼셨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6.25 전쟁으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당장 땟거리가 없어도 걸망지고 공부하러 오는 수좌들은 항상 반겼고, 떠나는 수좌들에게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가장 먼저 예불에 참여하고 가장 오랫동안 용맹정진을 하신 분도 바로 동산스님이셨지. 동산스님을 보면 저절로 신심이 나고 수행에 철저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담월스님은 요즘 천수주력에 열중이다. 신도들에게도 천수주력을 많이 하라고 권하신단다. 주력에 의존하는 것이 타력신앙이 아니냐는 질문에 스님은 간명하게 답하셨다.

"아무리 바삐 살아도 부처님 가르침 대로 성품 근원 찾는 노력 게을리 말아야 해요"

"참선과 염불은 둘이 아니지. 아미타불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 생각이 미치게 되면 그대로 무량수(無量壽) 무량광(無量光)이고,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이야. 진리가 따로 있지 않아, 바로 이것이 진리지. 사람은 모두 저마다 근기가 달라 혼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질 못해요. 천수주력은 대비주의 위신력을 빌리자는 것이지, 의지하라는 뜻은 아니야. 참선수행은 웬만큼 근기가 익은 후에 해도 늦지 않아. 무엇이든 근기에 따라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대화가 길어지면서 담월스님은 힘들어하셨다. 한 손으로 잡은 경전이 조금씩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 불자들에게 주실 말씀을 청했다.

"처세간여허공(處世間如虛空) 여연화불착수(如蓮華不着水) 심청정초어피(心淸靜超於彼) 계수예무상존(稽首禮無上尊)이라. 세간생활 하되 허공같이 비워서 걸림 없게 하고, 연꽃이 더럽고 깨끗한 물에 젖지 않는 것 같이 하라.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장애나 구애받음이 없으니 자기의 부처에게 의지하라는 뜻이지. 항상 마음의 근본을 밝히고 성품의 근원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해요. 요즘 사람들은 풍부함을 누릴 줄만 알았지 욕망을 절제하는 법은 몰라요. 세상이 혼탁한 것도 그 욕심 때문이지.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에 효도하고, 책임을 다해 가정을 돌보고, 부처님 계행을 바탕으로 삼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을 바로 세우는 것이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담월스님은 20년전 이곳 백련사에 왔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셨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세월이 흘러 나이가 쌓인 것뿐이라고. 하지만 스님은 그것조차 잊고 사신다. 세월의 경계도, 아름답고 추함의 경계도 모든 것이 다 상(相)에 불과한데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산에 묻혀 산처럼 살아가시는 담월스님에게서 또 다른 산을 보았다.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 일선스님

도반은 수행길의 평생 벗이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에게는 이 도반이라는 말이 가장 정겹고 풋풋하다. 아마 스님네에게 도반이 없다면 수행의 길은 외롭고 힘들 것이다. 수행길에서 도반은 탁마(琢磨)의 개념이 더 크다. 모난 돌이 정을 만나면 반들반들 조아지듯 도반은 서로 경책하고 점검하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도반을 통해 자신의 허물도 알 수 있고 모난 성격도 고쳐진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도반을 잘 만나는 일은 공부의 반을 성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셨나 보다. 아닌게 아니라 이러한 도반의 은덕으로 들쭉날쭉 하던 내 성격도 둥글둥글한 조약돌이 다 된 것 같다.

많은 도반들 가운데 늘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스님이 희양산 봉암사에 살고 있다. 그 스님의 법명은 일선(日禪)이다. 일선 스님을 만나면 도반의 인연이 된 것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그는 수행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일등 수좌다. '걸어다니는 수행자'나 다름없다. 밥 먹는 일부터 잠자는 일까지 그의 행동은 수행인의 자세와 계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일선스님은 절집에 들어와서 강원 시절 빼고는 줄곧 선방에서만 정진하고 있다. 스님에게는 해제와 결제가 따로 없다. 안거가 끝나도 일주문을

해제-결제 따로없는 수행

승복 무릎부분 겹겹 헝겊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를 도심에서 만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는 한 곳에서 정진하면 3년 결사를 한다. 지금까지 문경 봉암사, 김천 수도암, 지리산 칠불암에서 3년씩 공부하고 올해부터 다시 봉암사에서 정진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봉암사는 상선원(上禪院)과 하선원(下禪院)으로 나누어 한 철 살림을 산다. 하루 12시간 이상 정진하는 수좌들은 상선원의 선실에 앉게 되는데 일선스님은 매 철마다 이 선실의 터줏대감이다. 어느 해는 공부 잘하는 수좌들이 모인 덕분에 잠을 더 줄이고 한 달 동안 가행 정진을 했다고 들었다.

어느 해 여름 봉암사에서 그를 만났을 때 마애불로 오르는 길에서 이렇게 말했다.

"갈수록 참선이 힘듭니다. 10년 이상 이 수행을 했으니 육체 조복은 되었는데 번뇌 조복이 영 되질 않습니다. 청산에 앉았어도 구름은 걷히지 않는 것이지요"

좌복 위에서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는 일은 하루 종일 하여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육체적 편안함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두에 매달리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 빠지는 일종의 무기(無記)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의 표현은 실참(實參)의 수행에서만 가능한 목소리였다. 그러한 경계가 어디 이론과 지식으로만 체험되는 부분이던가. 하루 6시간만 앉아 있어도 어깨가 굳는 내 처지로서는 육체 조복(調伏)조차도 깜깜한 단계다. 일선스님은 이미 그 단계를 넘고 있었다. 고인(古人)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수레를 끄는 소의 고삐를 잡는 일만 남은 것 같다.

일선 스님의 수행 과정은 아무래도 우행(牛行)에 가깝다. 서두르지도 급하지도 않다. 천천히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그 과정은 길고 먼 고행 길임을 그의 안광(眼光)을 보면 실감한다.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한 스님 중에 강원에서 이력을 마친 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입적하신 성철스님의 선풍(禪風)과 가르침 때문이다. 일선스님이 쌍계사 선원에 살고 있을 때 하루는 어느 암자에 들렀는데 그 암자에 계신 노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젊은 수좌! 나 또한 평생 납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아쉬움은 없지만 딱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네. 그 한 가지가 강원 공부를 못해본 것이요. 참선 공부는 평생의 일이지만 강원 공부는 시기가 주어지는 일이네. 참선은 너무 서둘지 말고 평생을 두고 차근차근 하시게"



그 노스님의 이 한마디가 큰 가르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강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강원 시절 몸을 뒤척이다 잠을 깨보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실루엣 물체가 보일 때가 많았다. 바로 일선스님이 잠자지 않고 이불을 방석 삼아 정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일 한차례 108 참회를 빼놓지 않고 올린다. 그가 입고 있는 승복을 보면 무릎 부분은 헝겊으로 잇대어져 있다. 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닳아지는 까닭이다. 게으름이 없는 수행의 한 단면이다.

일선스님은 도반이기 보다는 존경하는 스승이라 말해야 옳을 것 같다. 강원에서 같이 지냈던 어떤 스님은 삭발날이 되면 일선스님 몰래 욕실에서 그의 고무신을 씻어 놓았다고 한다. 그 정도로 도반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스님이다. 일선스님을 보면 진정한 수행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일임을 거듭 깨닫는다. 그는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는 또 다른 선지식이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새로운 불교환경단체가 출범합니다 명칭공모, 사업제안, 회원 활동가 모집

뭇 삶의 터전인 땅과 물을 살리려는 원력을 모아 새 불교환경단체의 창립(9월 6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네차례의 회의를 열어 백두대간 생명네트워크를 구축, 불교환경정책연구 및 교육 등 사업의 내용과 조직에 대한 얼개를 짜고 있는 중이며, 이는 사부대중의 공의에 따라 확정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새 불교환경단체의 명칭 공모, 회원·지역활동가모집, 사업제안을 받으려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시되,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으니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의견을 내주십시오.

◇ **명칭공모** '불교·환경·생명살림'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이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제안** 간단한 아이디어라도 괜찮습니다. 불교환경운동의 실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회원·지역활동가 모집** 돌멩이 하나도 손을 움직여야 옮길 수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동참이 불교의 환경과 뭇생명의 조화로운 살림살이를 만드는 길입니다.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402호
전화 720-1654, 팩스 720-1657 이메일 jirilive@chollian.net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준비위원회

특강안내

우리 山河의 근간인 백두대간과 그에 기반하고 있는 사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특강 및 슬라이드 상영을 갖습니다. 불자 대중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 특강주제 : '우리 산하(山河)의 올바른 이해'
– 백두대간과 사찰의 의미를 찾아서 –
▶ 강의 1 : '백두대간의 이해' 김원기(백두대간보전회 회장)
▶ 강의 2 : '백두대간의 실태(개발과 훼손)' 서재철(녹색연합 생태보전국장)
▶ 일 시 : 7월 28일(토) 오후 2시, 장소 : 조계사 문화교육관
▶ 주 관 :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준비위원회